

2) 달집태우기

달집태우기는 정월 보름의 달맞이를 위한 민속놀이로 풍년과 길흉을 점치며 모든 액운을 태워버리는 민속신앙과도 관계가 있다. 보름날 망월을 하기 위해서 언덕이나 마을 마당에 달집을 짓는다. 달집은 큰 기둥을 삼각으로 박거나 원추의 움막형으로 엮어서 그 속에 쉼이나 짚을 넣고 폭음이 나도록 대나무를 넣어둔다. 그리고 달이 떠오른 동쪽을 터놓고 그 가운데에 새끼줄로 달 모양을 만들어 매어둔다. 달이 떠오르면 달을 향하여 사배를 하고 달집 맨 위에 불을 지른다. 달집이 활활 타고 죽포가 터지면 모두 신나게 춤을 추면서 ‘애야디야’를 부르거나 ‘강강술래’를 하고 풍물을 치면서 환성을 지른다. 달집을 태우면서 달에게 절을 하고 한 해의 소원을 빌며 풍년과 마을의 번영을 빈다.

달집이 잘 타고 그 집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더위와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 하며, 연기만 나고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달집이 넘어지면 넘어진 쪽에 풍년이 든다고 믿고 있다. 마을마다 달집을 태우므로 이웃마을과 경쟁을 하기도 한다. 어느 마을의 불길기 높이 올라가며 오래 타고 넘어지지 않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기면 상대방을 야유, 희롱한다. 달집태우기는 쥐불놀이와 횃불싸움과 상통되는 놀이로 줄다리기의 서희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소리는 다음과 같다.

달집을 둘러싸고 부르는 소리

달집을 둘러싸고	얼싸 달이덜롱
하늘에는 별이 총총	얼싸 달이덜롱
대밭에는 댓잎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넷물에는 자갈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짚시락에 초롱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녹두장군 눈도 총총	얼싸 달이덜롱

달집에 불을 지르면서 부르는 소리

어얼싸 달이덜롱	얼싸 달이덜롱
물떠묵고 나오너라	얼싸 달이덜롱
달아달아 붉은달아	얼싸 달이덜롱
장구치고 나오너라	얼싸 달이덜롱
춤추고 나오너라	얼싸 달이덜롱
얼싸 달이덜롱	얼싸 달이덜롱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온다	얼싸 달이덜롱
금수강산에 풍년이 온다	얼싸 달이덜롱
지와자 좋다 얼씨구 좋다	얼싸 달이덜롱
금년 삼월에 꽃놀이 가자	얼싸 달이덜롱
금년 유월에 물놀이 가자	얼싸 달이덜롱
어얼싸 달이덜롱	얼싸 달이덜롱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온다	얼싸 달이덜롱
금수강산에 풍년이 온다	얼싸 달이덜롱
지와자 좋다 얼씨구 좋다	얼싸 달이덜롱
금년 구월에 산놀이 가자	얼싸 달이덜롱

금년 선달에 눈놀이 가자

얼싸 털이덜롱